

세종에서 안전하게 오래살기

Vol.16 응급구조 편



CONTENTS

| | | |
|--|--|---|
| 응급상황 시 우리는 무엇을 먼저 알아야 할까요? - SAFETY CHECK 01 | 상황별 응급처치 안전매뉴얼 - SAFETY MANUAL 06 | 선한 사마리아인이 더 늘어날 수 있기를 - SAFETY NOW 12 |
| 응급의료법 그것이 궁금하다! - SAFETY THINK 02 | 안전을 만드는 나의 행동 - SAFETY TIP 08 | 정책 홍보 Box - 2022 세종시 시민안심보험 13 |
| 안전그래픽으로 보는 세종시 골든 아워 - SAFETY GRAPHIC 04 |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윤종혁 소방위 - SAFETY INTERVIEW 10 | |

언제나 위험에 대비하는 세종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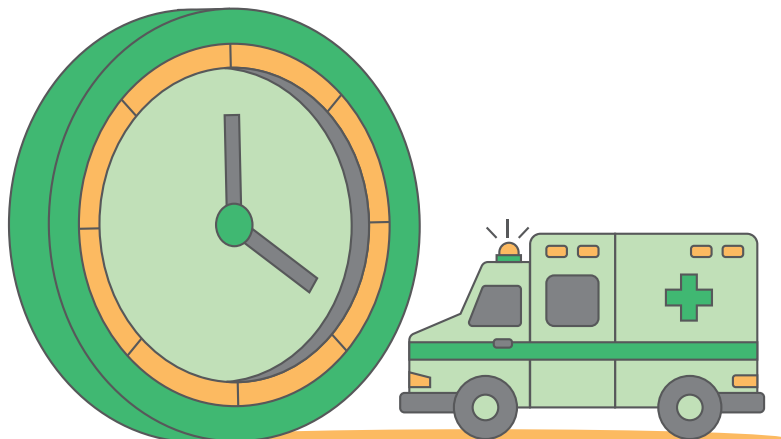
안전에 대한 대한민국 사회의 걱정과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현실에서 적용되지 못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 원인을 ‘안전불감증’ 때문이었다고 단순히 정의 내리기 전에 어떠한 소통과 교육이 문제였는지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2년은 참 안타까운 사고들이 많이 발생한 한 해였습니다. 가까운 대전의 아웃렛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의 발생과, 제빵공장 직원 기계 끼임 사망사고 발생, 할로윈 축제를 즐기려는 수많은 인파가 몰리며 발생한 이태원 사고는 물론, 두 번이나 붕괴가 일어난 봉화 광산 사고까지 많은 아픔을 간직한 안타까운 사고 소식들이 연이어 우리에게 전해져 왔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은 바쁘다고 허둥대다 실수하게 될 것을 염려해 생긴 말이지만 갑자기 응급상황을 맞닥뜨리게 됐을 때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지면, 허둥대기만 하다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응급상황에서는 침착하게 행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데 이 침착함은 평소에 만들어 두지 않으면 제때 꺼내 쓰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다급한 상황에서는 알던 것도 잊어버리기 일쑤이기 때문에 평소에 정확히 익혀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응급상황에서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금쪽 같은 시간을 가리키는 골든타임. 이처럼 귀한 시간을 놓치지 않는 방법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침착하게 119에 신고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마저도 정확히 신고하고 제대로 도움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또 상황에 따라 구급대원이 오기 전까지 대신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소중한 골든타임을 단 1분 1초라도 놓치지 않으려면 평소에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이번 호의 주제를 응급구조로 선정하고 침착하게 실수없이 응급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줄 정보를 담았습니다. 안전 문화매거진 <세종에서 안전하게 오래 살기>의 열여섯 번째 이야기, ‘응급구조’편을 통해 세종시민 누구나 어떤 응급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도록 준비된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시가 긴박한 '순간', 환자를 살리는 '판단'

응급환자 판단 기준 KTAS








응급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 이전 증상을 겪어도 대수롭지 않게 여겨 골든타임을 놓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곤 합니다. 하지만 의료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이 응급상황과 비응급상황을 판단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여기 소개하는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 도구인 KTAS(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을 잘 알아 둔다면 증상을 겪었을 때 긴급도를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KTAS 5 | KTAS 4 | KTAS 3 | KTAS 2 | KTAS 1 |
|--|--|--|--|---|
| 비응급 | 준응급 | 응급 | 긴급 | 즉각 소생술 |
| 감기, 장염, 설사, 열상(상처) | 38도 이상의 발열을 동반한 장염, 복통을 동반한 요로감염 | 호흡곤란 (산소포화도 90% 이상) 출혈을 동반한 설사 | 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 심장마비, 무호흡 |
| 긴급하지만 응급은 아닌 상태. 만성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거나, 악화의 가능성이 낮은 상태. | 환자의 나이, 통증이나 악화/합병증에 대한 가능성을 고려할 때 1-2시간 안에 처치나 재평가를 시행하면 되는 상태. |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진행할 수도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 생명 혹은 사지, 신체 기능에 잠재적인 위협이 있으며 이에 대한 빠른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하며 생명이나 사지를 위협하는 (또는 악화 가능성이 높은) 상태. |

내 손안의 응급실

응급의료정보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너무 아픈 나머지 병원을 찾아 두리번거릴 여유가 없을 때, 응급조치가 필요한데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을 때, 믿을 것은 지푸라기처럼 붙들고 있는 스마트폰밖에 없을 때 우리를 안전으로 인도해 줄 스마트한 애플리케이션을 소개합니다.

| | | | |
|--------------------------|---|--|---|
| 응급의료정보제공 E-GEN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시점과 위치를 기반으로 진료 가능한 병의원, 약국 등 정보 제공 • 자정까지 이용할 수 있는 응급실보다 가깝고 저렴한 달빛어린이병원 정보 제공 • 명절 응급진료 병의원, 약국, 휴일지킴이약국 찾기 • 응급처치 요령(기본 응급처치, 상황별 응급처치, 독극물 정보) • 민간구급차 검색(지역별 현황) | <p><다운로드></p>  <p>안드로이드 아이폰</p> |
| 똑닥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 주변 병원을 찾아 예약-접수해 기다림 없이 진료 가능 • 실시간 진료 대기 순서 확인 가능 • 자녀 대리접수도 가능 • 진료 후 가까운 약국 찾기 • 처방받은 약이 공급할 때는 간편하게 처방전 조회 | <p><다운로드></p>  <p>안드로이드 아이폰</p> |
| 굿닥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시간-상황별 맞춤 병원 검색 • 진료 후 가장 가까운 약국 찾기 • 야간진료, 주말진료 하는 병원 찾기 • 내게 필요한 진료 정보부터 상담까지 • 전문가가 알려주는 의료지식 꿀팁, 건강정보도 제공 | <p><다운로드></p>  <p>안드로이드 아이폰</p> |
| 국제 적십자사 응급처치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단한 단계별 지침으로 일상 속 응급처치 상황을 안내 • 긴급전화(119, 112 등)와 연결되어 신고 가능 • 흑한, 지진 등 각종 재해-재난에 의한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정보 수록 • 사전에 로드해두면 데이터 또는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사용 가능 • 50개 국가-지역에서 37가지 언어로 이용 가능 | <p><다운로드></p>  <p>안드로이드 아이폰</p> |

일상에서 만나게 될지도 모를 응급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약칭: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자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 제정한 법입니다. ‘응급의료법’이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분들을 위해 일상에서 만나게 될지도 모를 응급의료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정의



·응급환자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함

·응급의료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함

·응급처치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응급의료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医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또한 같다.

·제4조(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

- ① 모든 국민은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 응급의료기관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대한 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② 모든 국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에 대한 시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제5조(응급환자에 대한 신고 및 협조 의무)

- ①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医료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면 누구든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 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은 감면한다.

- 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 응급의료종사자
 -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 의무를 가진 자
- ②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 ③ 제1호 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 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 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끓어 부스럼 만들기? 안 하느니만 못한 잘못된 응급처치 바로잡기

영화 속 인공호흡 장면, 할머니가 전수해 준 민간요법, 정보의 바다 인터넷 등등. 우리는 다양한 곳에서 응급처치 지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응급처치 중에는 생각보다 잘못된 것들이 많습니다. 상태를 더 악화시켜 큰 병을 불러올 수 있는 안 하느니만 못한 잘못된 방법들. 무분별하게 퍼져 있는 잘못된 응급처치 방법과 올바른 응급처치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코피 날 땀 고개를 뒤로 젖혀야 한다?

코피가 나면 다들 피가 아래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 본능적으로 고개를 뒤로 젖히고 한다. 이때 피가 목으로 넘어가 구토를 유발할 수 있으니 고개를 바로 하고 지혈할 것.

Q. 상처 부위는 과산화수소수로 소독해야 한다?

많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상처가 났을 때 과산화수소수를 붓곤 한다. 그러나 과산화수소수를 상처 부위에 뿌리면 박테리아를 죽이는 과정에서 건강한 세포까지 함께 죽이기 때문에 상처가 더 깊어지거나 회복이 오래 걸릴 수 있다. 과산화수소수 대신 흐르는 물로 깨끗이 씻어내는 것을 추천한다.

Q. 기절한 사람은 물을 뿌려 깨운다?

빨리 깨우려고 얼굴에 물을 뿌리면 경련이 일어날 수 있다. 또한 깨어난 후에 커피나 에너지 음료를 주면 탈수 증상을 초래하기도 한다. 기절한 사람을 발견하면 먼저 119에 신고한 후, 다리는 높게, 목 끼는 옷은 풀어서 혈액순환을 돕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도록 한다.

Q. 독극물을 마셨을 땀 무조건 토하게 한다?

독극물을 토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부식성을 가진 산성, 염기성 물질을 삼켰을 경우라면 구토는 오히려 해롭다. 즉시 구급차를 부르고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도록 한다.

Q. 고열이 날 땀 알코올로 몸을 문질러야 한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잘못된 응급처치 방법이다. 알코올이 증발하면서 열을 식혀주는 것은 사실이나 큰 효과는 볼 수 없다. 오히려 알코올에 든 유독성 물질이 아이를 혼수상태로 만드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Q. 화상을 입었을 땀 소주로 소독한다?

소주는 소독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알코올 함량이 낮아 소독의 효과가 없다. 화상을 입었을 땀 소주가 아닌 흐르는 찬물에 15~20분간 대고 열을 식혀주고 병원을 찾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것.

약(藥)이 독(毒)으로 변하는 한 곳 차이

부작용 없이 올바르게 약 복용하는 법



약 포장지와 함께 동봉된 설명서에 빠곡히 쓰인 작은 글자들을 꼼꼼히 읽어보신 적이 있나요? 한 뼉 만한 약 상자가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잘못된 복용은 약의 몸속의 작용을 방해해 독약으로 돌변하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약 복용법을 알아보고 알맞게 복용하여 우리 몸을 괴롭히는 고통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 |
|---------|--|
| 고혈압약 | 의사와 상의 없이 복용을 중단하면 반동성 고혈압이 나타날 수 있다. 일부 고혈압 약(안지오텐신전환 효소 억제제,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Inhibitor)은 자동 주스와 복용할 경우 약효가 지나치게 증가해 독성이 나타날 수 있어, 약 복용 2시간 이후에 마시는 것이 좋다. 소염진통제와 함께 복용하면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으니 주의할 것. |
| 고지혈증약 | 스타틴 계열의 고지혈증약은 고혈압약과 마찬가지로 복용 시 자동 주스를 주의해야 하며, 무좀 치료제(항진균제)와 동시 복용 시 근육통, 구토, 갈색 소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
| 만성 폐질환약 | 주요 기관지 확장제와 흡입제가 처방되는데, 흡입제는 사용 후 입안을 물로 가볍게 헹구는 것이 좋다. 확장제 복용 시에는 흥분, 불안, 심박수 증가 등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카페인 함유 식품, 고지방이나 고탄수화물 식품을 피하는 것이 좋다. |
| 퇴행성관절염약 | 관절 통증 때문에 소염진통제를 과다 복용하면 위장, 신장, 간에 무리를 줄 수 있어 의사와 충분한 상담 후 복용할 것. 하루 3잔 이상 음주하는 사람이 소염진통제 등을 복용할 경우 간 손상과 위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 |
| 골다공증약 | 대표적인 골다공증약인 비스포스포네이트는 식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어, 앉거나 서 있는 상태에서 충분한 양의 물과 함께 복용하고 씹거나 녹여서 먹지 않도록 한다. 공복에 복용해야 약효를 발휘하므로, 복용 후 30~60분 동안은 다른 약이나 음식, 음료 섭취를 피한다. 알코올은 칼슘 배설을 촉진시켜 골다공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복용 중엔 음주를 자제할 것. |
| 알레르기약 | 재채기, 콧물, 코막힘, 눈 가려움 증상이나 감기 또는 비염약으로 통용되는 항히스타민제는 복용 시 졸음, 어지러움이 올 수 있어 운전, 기계조작 등은 하지 않도록 한다. 과일주스와 함께 복용할 경우에는 위산에 영향을 줘 약효를 저하시키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 |
| 변비약 | 대장에서 약효를 나타내야 하는 변비약은 위장에서 녹지 않도록 코팅돼 있는 경우가 많아 알약 그대로, 취침 전에 복용하는 것이 좋다. 우유는 위산을 중화해 약의 보호막을 손상시켜 위장에서 약을 녹게 하므로 제산제나 유제품을 먹었다면 한 시간 가량의 시간을 두고 복용할 것. |

오늘도 일어나는 세종시의 생활안전사고!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차분하게 행동하면 안전하고 빠르게 응급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소방청에서 제공한 자료를 통해 세종시 내 생활안전사고를 분류한 현황을 한눈에 보면서 나와 내 주변의 안전을 위해 한번쯤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둔다면 어디서나 침착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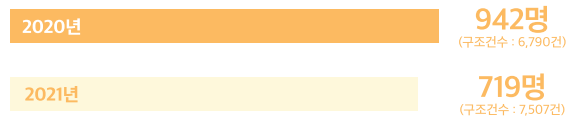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소방청(119구조구급활동실적보고), 세종시 구급활동 원시통계

119 구조활동 현황

전국



세종시



세종시 생활안전사고 발생 분석

| 연도별 | | | | | | | |
|---------|------|------|------|------|------|------|-----|
| 구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평균 |
| 추락 | 99 | 122 | 125 | 162 | 140 | 155 | 134 |
| 열상 | 231 | 307 | 309 | 412 | 335 | 360 | 326 |
| 그 밖의 둔상 | 101 | 157 | 150 | 185 | 125 | 153 | 145 |
| 동물/곤충 | 100 | 67 | 32 | 109 | 83 | 86 | 80 |
| 기계 | 49 | 42 | 39 | 37 | 51 | 51 | 45 |
| 상해 | 185 | 167 | 165 | 209 | 106 | 124 | 159 |
| 계 | 842 | 934 | 905 | 1196 | 926 | 1002 | 968 |

| 연령별 (2016~2021) | | | | | | | | | | |
|-----------------|--------|-----|-----|-----|-----|------|-----|--------|---------|------|
| 구분 | 10대 미만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65세 이상 | 연령 미신고건 | 합계 |
| 추락 | 110 | 66 | 42 | 64 | 113 | 174 | 96 | 138 | 0 | 803 |
| 열상 | 372 | 209 | 256 | 292 | 266 | 268 | 119 | 163 | 9 | 1954 |
| 그 밖의 둔상 | 138 | 101 | 87 | 136 | 130 | 123 | 64 | 88 | 4 | 871 |
| 동물/곤충 | 33 | 35 | 23 | 32 | 58 | 99 | 49 | 147 | 1 | 477 |
| 기계 | 8 | 5 | 29 | 43 | 60 | 64 | 26 | 34 | 0 | 269 |
| 상해 | 8 | 67 | 124 | 161 | 227 | 231 | 64 | 65 | 9 | 956 |
| 계 | 765 | 515 | 602 | 797 | 930 | 1032 | 450 | 688 | 26 | 5805 |

| 월별 (2016~2021) | | | | | | | | | | | | | |
|----------------|-----|-----|-----|-----|-----|-----|-----|-----|-----|-----|-----|-----|------|
| 구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합계 |
| 추락 | 42 | 59 | 51 | 66 | 71 | 97 | 77 | 64 | 74 | 75 | 70 | 57 | 803 |
| 열상 | 140 | 120 | 154 | 153 | 208 | 174 | 178 | 172 | 186 | 161 | 157 | 151 | 1954 |
| 그 밖의 둔상 | 68 | 44 | 69 | 81 | 79 | 74 | 84 | 70 | 96 | 68 | 69 | 69 | 871 |
| 동물/곤충 | 12 | 8 | 7 | 20 | 43 | 39 | 64 | 100 | 117 | 44 | 11 | 12 | 477 |
| 기계 | 18 | 17 | 17 | 24 | 19 | 29 | 22 | 25 | 29 | 21 | 31 | 17 | 269 |
| 상해 | 59 | 70 | 81 | 86 | 99 | 84 | 89 | 91 | 83 | 82 | 65 | 67 | 956 |
| 계 | 372 | 342 | 418 | 466 | 562 | 527 | 567 | 580 | 626 | 492 | 446 | 407 | 5805 |

'경계' 위의 금쪽 같은 시간을 잡아라!

미국의 외과의사이자 응급의학의 개척자인 애덤스 카울리(R. Adams Cowley)가 “삶과 죽음 사이에 골든 아워가 있다”고 말한 데서 유래한 ‘골든 아워(golden hour)’는 말 그대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금쪽같이 귀한 시간이다. 카울리는 중증 외상 환자에 대한 근본적 처치를 강조하면서 부상을 입은 후 1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할 경우 생존율이 높아진다고 봤다. 그러나 응급 질환에 따라 골든 아워는 달라진다. 그야말로 삶과 죽음의 경계 위에서 서 있는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알아보자.

패혈증 | 1시간

패혈증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의 감염으로 전신에 심각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오염된 어패류를 날로 먹거나 덜 익혀 먹어 생기는 비브리오패혈증 이외에도 폐렴, 요로감염, 간담도계간염, 소화기감염, 욕창, 복막염, 뇌막염, 외상 등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다. 증상은 감기와 비슷해 구분이 쉽지 않기 때문에 ① 체온이 38℃ 이상 오르거나 36℃ 이하로 떨어진다 ② 숨을 1분에 20회 이상 쉰다 ③ 맥박이 1분에 90회 이상 뛰다 ④ 의식이 떨어진다 등 네 가지 증상 중 2가지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증상을 방지하면 패혈성 쇼크가 올 수 있으며 이때 사망률이 40~60%에 이르기 때문에 초기 증상이 발생하고 1시간 이내에 항생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치아 손상 | 1시간

외부 충격으로 인해 치아가 부러지거나 빠졌을 때 건강하게 회복하려면 1시간 이내에 손상된 치아를 다시 심고 잇몸에 고정해야 한다. 치아의 뿌리에는 치아를 살리는데 중요한 조직이 있기 때문에 이물질이 묻었다고 수돗물이나 비누로 씻어내는 것은 금물. 오염을 방지하고 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 빠진 치아의 머리 부분을 잡고 생리식염수나 환자의 타액, 우유 등에 넣어 보관한 뒤 바로 치과로 가야 한다.

대상포진 | 72시간

대상포진은 어렸을 때 수두를 앓게 만든 베리셀라 조스터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질환이다. 척추에서 나오는 신경절에 잠복하고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활성화되며 물집이 생기고 바이러스에 장악 당한 신경절 부위에 극심한 통증을 일으킨다. 초기 증상이 감기와 비슷해서 오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집이 생기고 72시간 안에 항바이러스제 치료, 신경치료 등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통증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부정맥 | 4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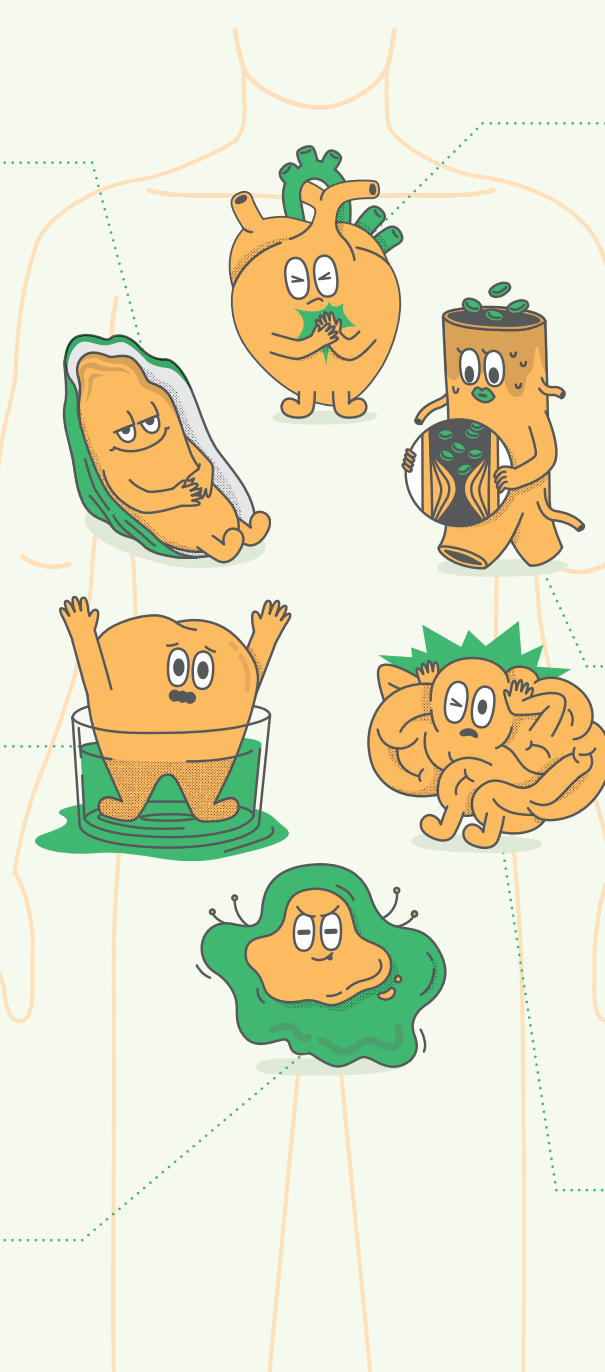
심장의 전기 신호가 불규칙하게 일어나는 것이 부정맥이다. 중증 부정맥은 호흡곤란을 느끼거나 쓰러질 수 있고, 더 심각하게는 의식을 잃거나 심장마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때 자동제세동기를 이용해 부정맥으로 인한 심장마비 환자의 응급처치를 도울 수 있다. 골든 아워가 유난히 짧아 119 도착 전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아파트, 지하철, 공항 등 공공장소에 비치된 자동제세동기 사용법을 숙지해 두는 것이 좋다.

급성심근경색 | 2시간

심장 혈관이 막히면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급성심근경색이 의심되면 우선 119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심장마비로 이어질 경우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중단되기 때문에 심정지 후 5분 이내에 신속하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한다. 병원 도착 전 사망률이 1/3 정도로 높은 치명적 질환이지만 환자의 평균 내원 시간은 2시간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골든 아워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뇌졸중 | 3~6시간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과 뇌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뇌경색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발병 후 장기적으로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 또 뇌졸중의 골든 아워는 3~6시간으로 알려져 있으나 병원 도착 후 실제 시술로 이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실질적인 골든 아워는 더 짧다. 따라서 갑작스러운 의식변화가 나타나거나 극심한 두통이 생기면 신속히 병원에 가는 것이 좋다.



자료 출처 | 안전문화매거진 <오래 살고 볼 일이다> vol.15 '응급처치 : 상황' 편

세종시 어느곳에서도 침착할 수 있도록 기억해 두세요

어떤 응급상황에서도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침착함', 어떤 응급환자를 만나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차분함'입니다.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차분하고 정확하게 대응해야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응급상황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종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생활 속 안전사고 대처 매뉴얼과 최근 우리에게 경각심을 준 축제 안전매뉴얼을 소개합니다.

1.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진피를 넘어 속살이나 뼈가 보일 정도로 피부가 심하게 찢어진 상태를 열상이라고 합니다. 부상을 입게 되면 그 즉시 움직임을 최소화해서 2차 손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혈이 있을 경우 깨끗한 수건 등으로 지혈한 후 병원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며, 움직일 수 없거나 통증이 심한 경우 119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2. 치명적인 귀여움에 가려진 위험



개,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은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기 때문에 광견병 보다는 파상풍 등 다른 병원균에 감염될 위험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반려동물에게 물렸다고 방심하지 말고 병원에 가서 항생제 등 필요한 처방 및 처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병원에 갈 수 없을 때는 흐르는 물이나 식염수로 상처를 씻은 후 소독약을 발라야 하고, 상처를 손으로 만지지 않아야 합니다.

3. 마음의 병보다 더 아픈데 어찌죠?







손상 후 첫 24시간 동안은 손상 부위를 높이 올리고 있거나 찬물 등으로 냉찜질 하여 출혈과 부종을 감소시킵니다. 부종이 줄어든 후에는 혈관 확장과 혈액 흡수를 돕고 관절운동의 회복을 위해서 1회에 약 20분 동안 온찜질을 해줍니다. 타박상 부위를 탄력붕대로 감아서 환부를 고정하고 압박한 후 가급적 움직이지 않고 안정을 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4. 벌벌 떨기 전에 벌 피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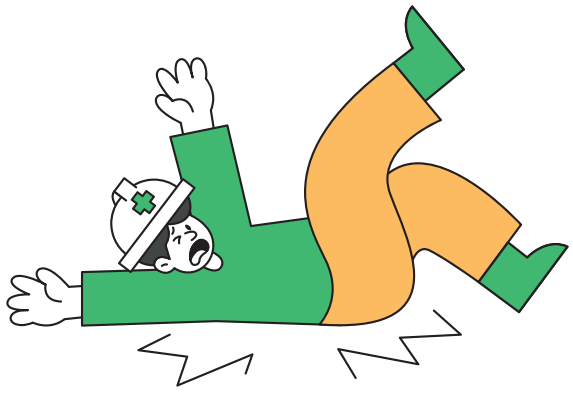
야외활동 시 주변에 벌이 있으면 손, 수건 등으로 쫓는 행위는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쓰이게 되면 더 쓰이지 않도록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응급 키트 또는 카드 등을 이용해 침을 제거합니다. 이때 무리하게 제거하지 않도록 하고, 아나필락시스 쇼크 (Anaphylactic shock)가 올 수 있기 때문에 호흡곤란, 혈압저하, 피부발진 등의 증세가 보이면 즉시 119에 신고하여 응급처치를 받아야 합니다.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려주세요 | 119 신고 시 신고 위치를 정확히 설명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 
주소 정확한 주소를 알고 있을 경우 지번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전달
 예) 오세이프시 안전구 문화로 25길 오살볼 마트 앞이에요!
- 
시골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위치 전달
 예) 00마을회관 뒤쪽 비닐하우스 앞인데요.
- 
승강기 승강기 고유번호 확인 후 전달
 예) 승강기 번호가 0001-001이에요.
- 
등산로 국가지점번호 또는 산악위치표지판 활용
 예) 곰바위 K63 지점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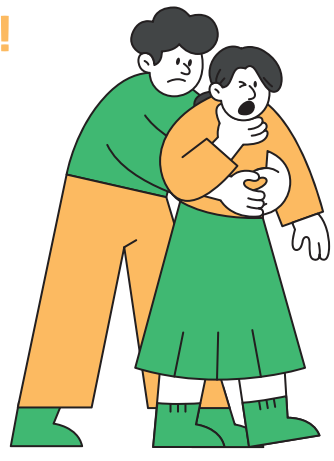
- 
전신주 전신주 위험 글자 아래 숫자 및 영어 8자리 번호 전달
 예) 여기 85755621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 
도심지역 가까운 상가 전화번호나 간판, 근처 잘 알려진 큰 건물을 통해 위치 전달
 예) 00 옷가게 근처인데, 간판 전화번호는 00-555-2500입니다.
- 
고속도로 IC, 휴게소, 기점표지판 등을 활용하여 위치 전달
 예) 호남고속도로 광주 방면 14.6Km 지점에 있습니다.
 * 시점 표지판은 갓길 쪽 200m마다 표시

5. 떨어지는 것은 즐겁지 않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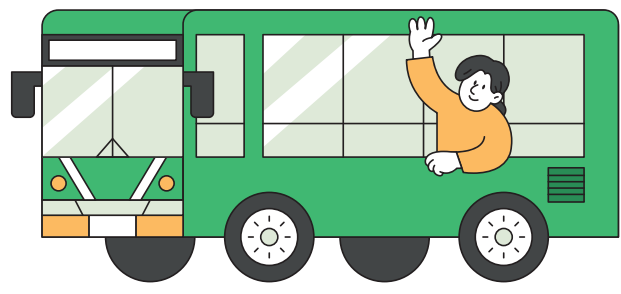
낙상 및 추락 사고시 손이나 팔, 어깨는 물론 심한 경우 고관절, 척추를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가급적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으며 혼자 있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있더라도 과도한 자세 교정은 오히려 손상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119 신고를 통해 응급처치 또는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손상 악화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6. 도와주세요, 하임리히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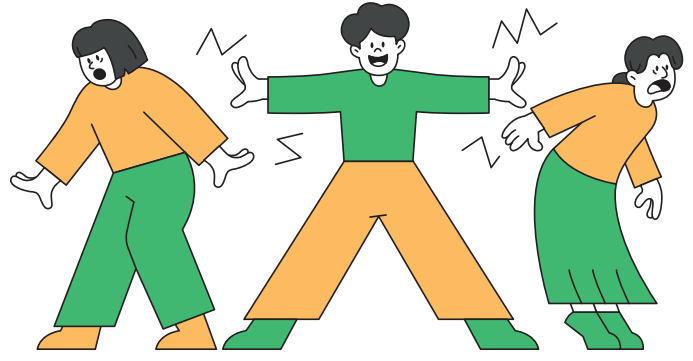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쇄 환자가 의식이 있다면 스스로 뱉을 수 있도록 돕고, 불가능한 경우 환자의 뒤로 다가가 하임리히법 및 복부 밀쳐 올리기를 실시합니다. 의식이 없다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하임리히법과 복부 밀쳐 올리기 방법을 정확하게 배워두세요.

7. 대중교통 이용하기 딱 좋은 날씨



축제 기간에는 곳곳에서 많은 인파가 몰려오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다리와 도로의 일부가 통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가용을 이용하게 되면 도로를 혼잡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돌발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조대의 접근조차 어려워 대형사고로 번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8. 이미 가깝지 않나요? 더 오시면 위험해요!



한정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압사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장할 때는 줄을 서서 질서 있게 입장하고 뛰거나 앞사람을 밀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전선이나 붕괴 가능성이 있는 설치물은 자칫 인명사고를 불러오기 때문에 조명 및 설치물과의 안전거리도 유지해야 합니다.

세종시의 준비된 구조자 '착한 사마리아인'을 양성하는

세종시 안전체험교육원

안전을 위한 준비와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 오래 전부터 널리 회자되어 왔던 것처럼, 응급상황을 위한 지식은 위기를 역전시킬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실제 사고나 재난 상황을 체험할 수 있는 환경에서 대처 및 처치에 대한 본격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세종시 안전체험교육원을 소개합니다. 안전체험교육원은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이라는 교육비전을 실현하고 미래교육·책임교육·혁신교육을 통해 학습도시 세종을 만들어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입니다. 2021년 9월 1일자로 개원하여 지진, 풍수해 등 자연재해와 자동차, 항공, 선박, 승강기 등 일상생활 안전사고 분야별로 모두 12개 체험관, 25개 체험장, 4개 전시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체험시설을 활용하여 대상별 맞춤형 안전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체험중심의 안전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인터넷 예약 | <https://safesj.sje.go.kr/> → 회원 가입 및 교사(EPKI) 로그인 → 홈페이지 메인 '체험예약' 클릭
 전화문의 | 044)905-0936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을 내창천로 54(신봉초등학교 및 조치원 소방서 뒤편)

내 증상은 내과? 외과? 몸이 아플 때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할지 헷갈린다면

비슷한 시기 두 명이 같은 감기를 앓더라도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은 사람이 내과에 다녀온 사람보다 빨리 완쾌할 수 있습니다. 세종 시민들을 위해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몰랐던 꿀팁과 증상별 병원 선택 포인트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이럴 땐 내과로!

- **머칠째 설사를 계속한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일 가능성이 높다
- **코피가 자주 난다**
자주 심하게 날 때는 순환기 내과를 찾는 것이 좋다.
- **눈이 나빠지고 시야가 뿌옇다**
당뇨병 등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 **입안이 바싹바싹 마른다**
갈증까지 겹치면 내과 질환일 확률이 높다.
- **땀을 지나치게 많이 흘린다**
성인병이 원인일 수 있으므로 내분비과로 갈 것.
- **목이 붓고 들리기가 힘들다**
뇌졸중 등 순환기 질환이 의심되므로 내과 검진을 받아야 한다.

이럴 땐 외과로!

- **목이 뻣뻣하다**
대부분 스트레스나 잘못된 자세가 원인. 정형외과에서 수축된 근육을 풀어줄 것.
- **뼈 마디마디가 이유 없이 쑤신다**
관절이나 근육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이므로 정형외과 검진을 받는다.
- **두통이 심하고 몸이 굳는다**
두통과 함께 몸이 경직되면 신경계통 질환일 가능성이 높다. 신경외과의 검진을 받을 것.
- **항문이 가렵고 아프다**
치질이나 치루 등 항문 관련 질환은 항문외과를 찾아가면 치료가 빠르다.

이럴 땐 이비인후과로!

- **코가 막히면서 두통이 심하다**
축농증인 경우 먼저 두통이 생긴다.
- **목이 잠기고 쉬었다**
목감기가 발생했다면 내과보다는 이비인후과로 가는 것이 치료가 빠르다.
- **한쪽 얼굴만 육신육신 아프다**
중이염일 경우에도 흔하게 일어나는 증상이다.
- **기침이 점점 심해지고 목이 아프다**
기관지에 이상일 경우 일반 감기라도 이비인후과가 정확하다.
- **열이 나고, 콧물, 코막힘이 있다**
코감기일 때는 이비인후과를 찾는 것이 좋다.
- **입술이 잘 부르트다**
보통 몸의 피로, 면역력 저하가 주원인이지만 점막이 원인인지 먼저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이럴 땐 신경외과로!

- **한쪽 얼굴에만 마비가 온다**
스트레스나 노이로제 등으로 인한 안면 신경마비 증상이다.
- **손가락이 떨린다**
수전증은 뇌신경계의 이상 신호일 수도 있으니 신경정신과에서 검사를 받는다.
- **현기증이 자주 난다**
정신적 스트레스나 과로, 또는 평형감각을 담당하는 내이의 질환이 원인이다. 신경과 검진 후 이상이 없다면 이비인후과를 방문할 것.

인산인해 속 질식사고를 예방하는 방법. 간단한 동작만으로 숨통이 트여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밀려들어 꿈쩍달걀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숨을 쉬기 어려울 만큼 가슴 압박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간단한 동작 만으로도 질식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축제를 즐기기 전에 질식 사고를 예방하는 동작을 알아봅시다.

1

양팔을 앞으로
쭉 뻗는다.



2

오른손으로
왼팔 안쪽을 잡는다.



3

왼손으로 오른팔을
잡고 가슴 앞으로
공간을 확보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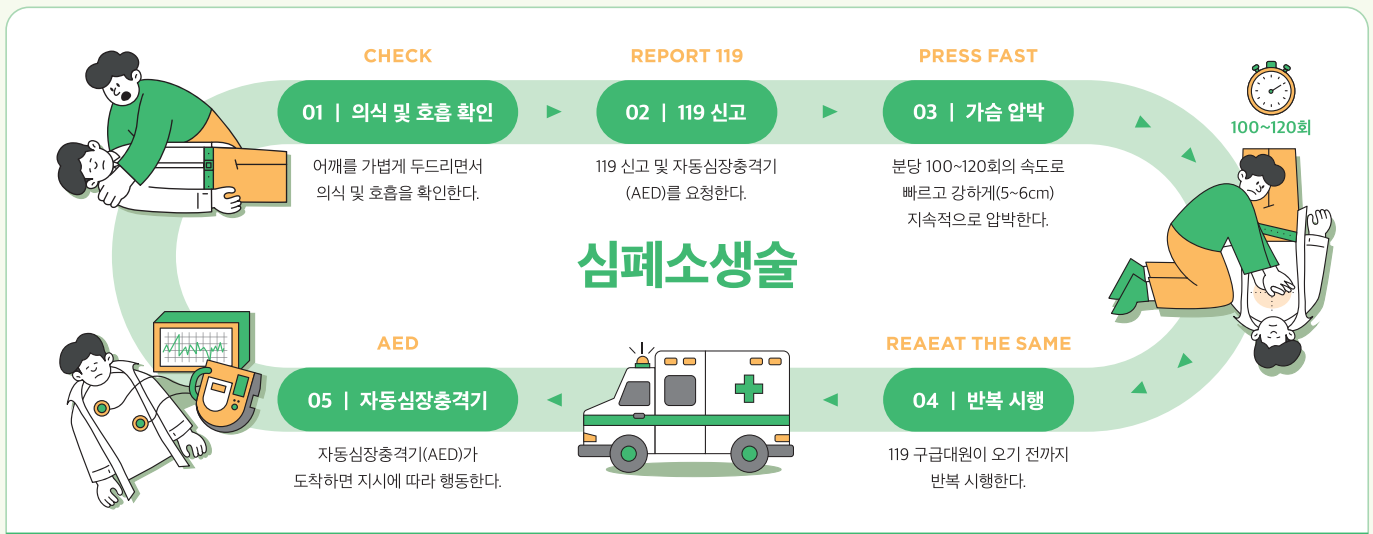
TIP

팔짱을 낀 상황이 되지 못할 경우, 압박을 덜어줄 수 있는 인형이나 가방을 가슴 부위에 갖다 대고 있는 것도 방법입니다.



알아두면 정말 쓸모있는 심폐소생술

알아 두면 정말 쓸모 있는 구급법이 있습니다. '구급'이라는 단어 때문에 어렵다고 지레짐작할 지도 모르겠으나, 구급법의 핵심으로 심폐 응급상황의 가장 확실한 응급처치는 심폐소생술입니다. 이름과는 달리 심장이나 폐를 소생하는 방법이 아닌, 쇼크 등으로 인해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는 심장의 기능을 시술자가 대신하여 뇌에 혈액을 공급해 뇌사를 방지하는 게 목적입니다. 근본적으로 혈액을 돌려줘야 환자가 살아있을 수 있으며, 아예 심장이 정지한 상태에서 환자를 살려볼 유일한 방법은 심폐소생술 뿐입니다. 누군가의 부모, 형제, 친구, 연인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심폐소생술을 배워볼 수 있도록 정리해보았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최근에는 전문 교육을 받지 않은 시민에게는 가슴 압박만을 실시하는 가슴압박소생술(Hands only CPR)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의식과 호흡을 확인하고, 의식 및 호흡이 없거나 불확실한 경우 119에 바로 신고하고 가슴 양 옆쪽지 중간을 빠르게 압박합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반복합니다.

축제의 시작과 끝은 안전! 축제 안전 행동요령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좁은 골목에 할로윈 축제를 즐기려는 수많은 인파가 몰리며 안타까운 생명과 건강을 앗아간 다중밀집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서 더 즐거운 축제. 그러다 보니 아무리 조심하고 대비한다고 해도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안전사고 예방법을 숙지해서 되도록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겠지만, 상황이 벌어졌을 때의 대응법을 알아두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 모두가 알고있습니다. 2차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축제 안전 행동요령을 알아보겠습니다.

| 입장·퇴장 시 | 축제 현장에서 | 주최·주관 측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장 시 뛰거나 앞사람을 밀면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뛰지 않도록 한다. 안전관리요원의 안내에 따라 줄을 서서 정해진 통로를 이용한다. 입장이 자유로운 경우도 있지만, 정해진 곳에서는 공연, 행사 시간을 사전에 확인하고 입장 시간을 준수한다. 퇴장 시 가지고 온 물건은 그 자리에 버리지 말고 가져가도록 한다. 위급상황 발생 시 단독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삼가며, 안전관리요원의 안내 및 지시에 적극 협조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람이 많이 모인 공공장소이므로 흡연을 삼가고, 과도한 음주 또한 삼간다. 다른 관객들을 밀거나 의도적으로 과도한 스킨십을 하는 등 피해를 주는 행동을 삼간다. 폭죽, 폭음탄 등 위험물을 사용하면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소지와 사용을 금한다. 관람석 이외의 출입금지 구역으로 다니거나 높은 곳에 올라가지 않는다. 야외축제의 경우, 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더위나 추위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대설치물과 특수효과가 안전하지 철저히 확인하고, 안전 점검을 확실하게 시행한다. 미리 동선을 체크해 비상시 관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탈출구 및 대피로를 충분히 확보한다. 되도록 전문 안전관리요원들을 배치하도록 하며, 사전 안전교육 시행은 필수다. 관객들이 폭죽, 총기, 화약류 등 위험물을 소지하고 입장하지 않았는지 철저히 체크한다. 안전관리자는 순찰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각종 응급상황에 대한 대책과 시나리오를 마련하도록 한다. |



INTERVIEW |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윤종혁 소방위

위기의 순간 빛나는 우리들의 영웅

살다보면 누구에게나 위기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는 이성을 마비시키고 패닉에 빠지게 만들죠. 피할 수 없는 사고라면 현명하고 빠른 대처만이 소중한 목숨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텐데요. 오늘은 세종시 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윤종혁 소방위와 함께 응급 구조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랜서 작가 이윤숙 (이하 이) | 안녕하세요?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윤종혁 소방위 (이하 윤) | 저는 세종시 소방본부 대응예방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위 윤종혁입니다. 2006년도에 입사해서 구조현장에서 구조대원으로 계속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은 대응예방과에서 내근을 하면서 구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유형에 대한 직원들의 훈련, 출동 시 대처법 그리고 출동 결과 분석 등을 하고 있고요. 타 시도나 타 국가에서 새로운 구조 기법이 나오면 이를 도입해 어떻게 적용할지 연구도 하고, 구조 현장에 필요한 장비 구매도 하고 구조 현장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 | 2006년부터 구조 현장에 계셨으니까 정말 많은 일들을 겪으셨을 것 같아요?

윤 | 제가 입사할 당시에는 세종시에 소방본부가 없었습니다. 초창기에는 부산에서 5년 정도 근무를 했고, 이후에는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약 2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세종시 소방본부 출범 이후 2013년부터 세종시에서 근무를 하기 시작했는데, 현장에서 기억에 남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람을 살렸을 때 뿌듯하거나 못 살려서 가슴이 아프거나. 사고 현장에 달려갔지만 이미 운명을 달리 하셨거나 열심히 처치를 했는데도 부상 정도가 심해 소생 가망이 없을 때 가슴이 많이 아프죠.

이 | 그럼 어떤 곳으로 자주 출동을 하시나요?

윤 | 세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사고 현장에는 다 갑니다. 2022년 출동 유형별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화재와 교통사고가 가장 많았고요. 감힘 사고, 승강기 고장, 추락, 자살, 산악사고도 적지 않게 발생해 출동을 많이 합니다. 이 외에도 벌집 제거, 동물 포획, 장애물도 처리하고요.

이 | 산악사고 현장에도 가시나요?

윤 | 보통 산악사고라고 하면 설악산이나 지리산 같은 곳을 생각하시는데요. 저희가 출동하는 산악사고는 높은 산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동네 주변에서 발생하는 산악사고입니다. 세종시 원수산 같은 경우 등산로가 많습니다. 가볍게 산책을 나갔다가 날이 저물어 길을 잃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기존 등산로를 벗어나 새로운 길을 개척(?)하려고 모험하는 분들도 있어 길 잃음 사고가 적지 않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 다양한 사고 현장에 출동하시는데, 대처 매뉴얼 같은 것도 있겠네요?

윤 | 현장 활동 매뉴얼이라고 있는데 이걸 참고해서 구조대원들은 매달 한두 가지씩 훈련을 진행합니다. 사회적 이슈가 생기거나 계절별로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여름철에는 물놀이 안전사고, 봄가을에는 산악사고, 겨울에는 동절기

사고 등을 대비해서 사전에 훈련을 합니다. 구조현장에서 안 해본 것을 하는 것과 내가 해봐서 몸이 알고 있는 것은 반응 속도가 다르거든요. 현장에 투입됐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 세종시에서 구조대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은 얼마나 되나요?

윤 | 세종시에는 2개의 소방서에 2개의 구조대가 있는데, 여기에 3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개의 구조대가 책임져야 할 관할 구역이 넓다 보니 안전센터에 펌프구조대가 또 있습니다. 펌프구조대(Pump-Rescue)는 소방 펌프와 구조대가 합쳐진 말로 구조대가 설치되지 않은 원거리 지역에 보다 신속하게 출동해 소방서 직속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 구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든 특별한 조직인데요. 세종시에는 160여명의 펌프구조대원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사고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윤 | 세종시는 지역적 특수성 때문인지 아이들 관련 사고가 많습니다. 이물질 삼킴 사고, 간힘 사고, 화상사고 등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세종시 아파트의 경우 모티스락 도어 손잡이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신기해서 돌리다보면 잠기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아이는 엄마랑 떨어져서 분리 불안이 생겨 울고, 엄마는 또 그런 아이를 보면 당황해서 패닉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 이렇게 응급상황이 생기면 당황하기 쉽잖아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윤 |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황실에서는 신고자와 계속 통화를 합니다. 구조대원들이 도착하기 전까지요. 만약 심정지 환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상황실에서 리듬을 알려주면서 유선으로 가슴 압박을 지도하고 계속 리듬도 맞춰줍니다. 구조현장에 가는 대원들 역시 빠르게 이동하면서 유선을 통해 선조치를 취하기도 하고요. 그러니 지시에 따라주시면 되고요. 만약 화재가 발생할 경우라면 화재를 진압하기보다 유도를 빨리 해 주는 게 좋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당황해서 ‘여기 불났어요 빨리 오세요’라고 툭 끊어 버리는 분도 계신데 그러면 대응 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흘러가 버립니다. 신고 시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해 주셔야 하고요. 가급적 통화를 유지하면서 선조치를 하고, 빠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 응급상황은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윤 |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할까 말까 고민이 들 때는 안하시는 게 좋고요. 아이들의 손이 닿을만한 곳에는 위험한 물건을 두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간힘 사고를 대비해 안방 열쇠는 가급적 거실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손잡이의 결함으로 인한 간힘 사고도 종종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문의 이상이 발견될 때는 오랜 시간 방치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교체를 해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 응급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면 어렵거나 힘든 점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윤 | 갑작스런 사고와 직면하게 되면 신고자 입장에서는 그 순간이 가장 긴급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 구조대원이 도착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고요. 저희는 신고 출동이 떨어지자마자 달려가는 건데, ‘왜 이제

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보면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를 우리는 비긴급신고라 부르는데, 이런 비긴급신고로 출동을 하게 되어 정말 위급한 구조 현장에서 구조가 지체되거나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게 되어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 혹시 소방본부에서 진행하는 안전 관련 프로그램들도 있을까요?

윤 | 상습 정체 구역의 교차로를 보면 긴급차량 우선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이게 뭐냐면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호등 단말기와 연동이 되어서 일시적으로 신호체계가 바뀌어 소방차들이 빠르게 이동 할 수 있는 건데요.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출동 소요시간이 많이 단축이 됐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오래 하신 분들은 자주 다니는 교차로의 신호 체계를 잘 알고 있다 보니까 미리 신호를 예측하고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위급 출동차량과 충돌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긴급차량출동 예측출발금지’라는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안전운전을 해 주셔야 합니다. 소방본부에서는 이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에 대해서 꾸준히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 마지막으로 세종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윤 | 뉴스를 통해 구급대원 폭행이야기를 종종 접하셨을 텐데요. 구조·구급대원들은 응급상황에 처한 여러분께 도움을 주러 가는 분들입니다. 환자 가장 가까워서 최선을 다해 처치를 하는데, 그 상황에서 폭행을 가하면 이유도 모른 채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런 불미스런 사건으로 구조·구급대원들이 활동을 제대로 못하게 된다면 도움이 필요한 다른 시민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겠죠. 구조·구급대원들은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러 가는 사람이라는 점 잊지 마시고, 저희들이 구조와 처치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취재 | 이윤숙 (프리랜서 작가) 사진 제공 | 대전세종연구원



생명을 살리는데 망설임은 없어야 합니다

이태원 사고로 착한 사마리아법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적극적으로 구조에 나섰던 사람들과 구조에 나서기를 주저했던 일부 시민들의 모습이 확인되면서다.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도우려는 도덕과 구조 후에 발생할지 모르는 책임 사이에 '사마리아인법'과 '착한 사마리아인법'이 있다.

'사마리아인법'은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해야 할 '법적 의무'를 모든 국민에게 부여하는 법이다.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국가들과 미국 일부 주에서 '구조거부죄'로 도입하고 있으며, 구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1997년 영국 다이애나비가 프랑스 파리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 옆에서 구조하지 않고 사진만 찍은 파파라치들이 이 법으로 처벌됐다. 한국은 사람을 구하지 않은 죄를 묻지 않는다. 다만 노인이나 영아, 직계존속, 질병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로 하는 사람의 법률상·계약상 보호자는 자신이 보호해야 할 사람의 위험한 상황을 그대로 방치했을 때 유기죄로 처벌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예외를 두고 있다.

반면 '착한 사마리아인법'은 긴급 의료 활동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면책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면책 필요성이 가장 언급되고 있는 분야는 이번 사고처럼 사망사고가 났을 경우로, 우리나라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응급의료 종사자가 아닌 일반인이 실시한 응급의료 등으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 등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응급의료법의 취지는 좋지만, '사망 사고'의 경우 책임을 '감면한다'고 돼 있어 법적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착한 사마리아인법과 관련한 입법 개정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구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법의 경계가 모호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과 도덕에 내재된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이 그 이유다. 그렇다면 착한 사마리아인법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자신이 위험에 처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을 외면해도 될까. '법적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따질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당연히 구해야 할 것이다. 국가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헌법 제34조 제6항, 재난안전법 제4조 제1항), 경찰관은 천재, 사변,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 그 장소의 사람들에게 경고하거나 피난시키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갑자기

발생한 사고를 예방하고 피난 조치를 할 의무까지 있는 것이다. 국가나 경찰이 제때 나서지 못하는 순간에 착한 사마리아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망은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태원 사고는 대한민국 전체를 거대한 슬픔에 빠뜨렸다. 희생자와 유족, 생존자는 물론 SNS를 통해 참사 현장의 사진이나 영상에 무방비로 노출된 국민들까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이다. 이에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사고 바로 다음 날인 10월 30일 성명서를 통해 "인명피해가 큰 사고로 국민들은 또 하나의 커다란 심리적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되었다"며, SNS를 통해 사고 당시의 현장 영상과 사진을 퍼뜨리는 행동을 중단하고, 언론 역시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고 사회적 혼란이나 불안을 야기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번 사고로 유가족과 지인, 목격자, 사고 대응 인력을 비롯한 많은 국민이 큰 충격을 받아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신건강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전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국가트라우마센터 홈페이지에 '이태원 사고 통합심리지원단 운영 안내'에서 마음안정화기법, 사고 관련 정부 자원정책 정보를 확인해 보자. 이외에도 이태원 사고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국민이 정서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난 심리회복지원 24시간 상담 전화(1577-0199)를 운영하고 있다.

글 | 유정(오세이프 에디터)

세종시민을 위해 세종시가 다 책임질게요 2022년 세종시 시민안심보험

‘세종시 시민안심보험’은 세종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부담해 각종 재난 및 사고 등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 부상(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을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세종시 시민안심보험 개요

| 피보험자 | 보험기간 | 보험료 | 보험금 청구 |
|--------------------------------------|---------------------------------|--------------------|--------------------------------------|
|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 (등록외국인 포함) | 2022.4.29 ~ 2023.4.28(1년) | 세종시청에서 일괄 가입·납부 | 보험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통장 사본 등 |

※ 자세한 사항은 공제회로 문의(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고객센터 1577-5939)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상법 제662조)

보장 내용

|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 자연재해사망 |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 1,000만 원 |
|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 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1,000만 원 |
|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 후유장애 |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1,0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애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12세 이하 시민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지급 | ~1,000만 원 (부상 등급 1급~5급) |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 | 300만 원 |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애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애 발생 | ~300만 원 |
| 강도 상해사망 | 강도에 의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1,000만 원 |
| 강도 상해후유장애 | 강도에 의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 의료사고 법률지원 |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변호사 착수금 80% | ~1,000만 원 |

2022년 추가된 보장 내용

| | | |
|-------------------|---|--------------------------|
|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 | 만65세 이상 시민이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지급 | ~500만 원 (부상 등급 1급~5급) |
|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응급실 진료를 받은 경우 (세종시는 충남대학교 병원, 연케이 세종병원이 해당) | 20만 원 |

※ 만15세 미만 사망담보 제외(상법732조) ※ 상해 후유장애는 3~100% 후유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안전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지역안전지수

세종시의 지역안전지수는 몇 등급?

2022년 세종시 지역안전지수 2021년 통계기준

| | |
|----------------------|----------------------|
| 자살 안전지수 | 화재 안전지수 |
| 범죄 안전지수 | 생활안전 안전지수 |
| 교통사고 안전지수 | 감염병 안전지수 |

- 2022년 세종시 지역안전지수는 자살, 화재, 범죄, 감염병 분야에서 1등급으로 나타났고, 교통사고가 3등급, 생활안전이 4등급으로 나타났다.
- [안전수준] 시/도, 시/군/구 비교 그룹 내에서 해당연도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수준(1등급 일수록 안전)
- [개선정도] ★: 전년대비 등급 상승 수

세종시 지역안전지수 5개년(2018년~2022년) 추이

| | |
|----------------------|----------------------|
| 자살 안전지수 | 화재 안전지수 |
| 범죄 안전지수 | 생활안전 안전지수 |
| 교통사고 안전지수 | 감염병 안전지수 |

* 2017년~2021년 통계 기준
 * 1등급일수록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의미입니다.

발행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안전정책과
기획 대전세종연구원 도시안전연구소

발행일 2022년 12월
디자인·제작 안전디자인연구소 오세이프

문의 안전정책과
 044-300-3613~4

안전문화매거진 <세종에서 안전하게 오래살기>는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도시위원회, 대전세종연구원 도시안전연구소, 안전디자인연구소 오세이프(OSAFE)와의 협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본 매거진의 발간으로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더욱 깊이 공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물론, 안전에 관해 꼭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며 '세상에 도움이 되는 가치'를 만들고자 합니다.



QR code

홈페이지(sejong.go.kr)와 QR 코드로도 안전문화매거진 <세종에서 안전하게 오래살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